

외자 제약기업 수익구조 안정

건실한 외형성장 유지 ... 제품력·마케팅력에 경험까지 축적

국내에 진출한 주요 외자 제약기업들이 건실한 외형성장세를 기록하는데 힘입어 수익구조가 안정되는 등 국내에서의 입지가 확고히 구축되고 있다.

안센, 한독, 화이자, 웨링 등 상위 기업들은 성장속도에 탄력이 붙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39.1%의 한국오츠카를 필두로 한국안센(14.5%), 녹우제약(13.4%), 한국존슨(12.0%), 한독약품(11.4%) 등 5개사는 매출액경상이익률이 10% 이상을 올려 알찬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안센, 한국존슨, 한국오츠카 3개사는 3년 연속 경상이익률이 10%대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2개 기업의 94년 영업실적에 따르면 총536억6300만원의 매출을 올려 93년의 461억5300만원에 비해 14.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상이익규모는 319억4800만원으로 93년의 260억9800만원 대비 29.1%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매출액경상이익률은 92년 5.1%, 93년 5.6%, 94년 6.0%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국내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견실해지는 것은 모체인 선진 다국적기업의 독보적인 제품력과 마케팅력을 내세워 국내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파력을 축적했기 때문이며 국내 시장적응력이 제고되고 국내기업과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안센은 국내 진출 10년만에 외자기업중 외형 기준으로 수위업소에 등극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 매출액경상이익률이 무려 14.5 17.0%에 달하는 알짜배기 기업으로 성장했다. 94년 616억8700만원의 매출을 기록, 93년대비 무려 27.9%의 외형성장률을 시현했다.

주요 외자 제약기업 영업실적										(단위 : 100만원, %)
구 분	결산월	순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1993	1994	증감률	1993	1994	증감률	1993	1994	증감률
한국안센	12	51,747	66,187	27.9	8,659	9,576	10.6	5,239	5,889	12.4
한독약품	12	57,568	65,210	13.3	976	7,408	659.0	44,543	4,593	▽89.7
한국화이자	11	43,005	46,781	8.8	3,921	3,905	▽0.4	1,319	1,922	45.7
한국웨링	12	33,504	37,483	11.9	1,655	2,266	36.9	608	892	46.7
한국산도스	12	24,657	32,469	31.7	568	92	▽83.8	129	▽413	적·전
한국그락소	6	32,806	30,820	▽6.1	1,377	▽371	적·전	516	▽555	적·전
대웅릴리	12	22,694	30,270	33.4	607	947	56.0	284	344	21.1
한화제약	12	24,530	22,899	▽6.6	1,212	291	▽76.0	763	137	▽82.0
한국로슈	12	18,805	22,863	21.6	▽1,016	▽866	적·지	▽1,028	▽905	적·전
한국셀시바	12	18,757	21,820	16.3	▽225	1,301	흑·전	▽689	1,006	적·지
한국업존	12	19,889	20,971	5.4	330	343	3.9	341	37	▽89.1
한국애보트	11	17,674	20,405	15.5	364	▽749	적·전	225	▽751	흑·전
한국베링거	12	18,363	20,342	10.8	748	923	23.4	349	367	5.2
한국존슨	6	18,983	17,269	▽9.0	2,169	2,069	▽4.6	1,506	1,344	▽10.8
한국오츠카	12	14,353	15,474	14.8	5,657	6,436	13.8	4,133	4,323	4.6
한국통프랑	12	13,002	14,005	7.7	1,396	1,393	▽0.2	750	713	▽4.9
한국아스트라	12	6,644	11,400	71.6	▽1,342	▽1,590	적·지	▽1,342	▽1,579	적·지
유한사이나	11	9,549	10,898	14.1	▽410	▽451	적·지	▽412	▽457	적·지
한국사노피	12	7,079	10,318	45.8	▽1,129	▽734	적·지	▽1,133	▽742	적·지
녹우제약	3	6,132	7,237	18.0	337	968	187.2	285	360	26.3
웨링프라우	12	4,827	6,439	33.4	▽1,125	▽722	적·지	▽1,011	▽739	적·지
해동에스에스	6	4,209	4,103	1.8	27	▽487	적·전	25	▽487	적·전
합계(평균)		461,953	536,663	14.3	26,098	31,948	29.1	56,742	15,299	▽72.4

주) 적·전:적자전환, 적·지:적자지속, 흑·전:흑자전환

외형성장률이 현저히 높은 외자기업은 71.6%의 한국아스트라를 비롯 한국사노피(45.8%), 대웅릴리(33.4%), 웨링프라우코리아(33.4%), 한국산도스(31.7%), 한국안센(27.9%), 한국로썬(21.6%) 등 7개사로 이들은 20% 이상의 매출성장률을 올렸다.

경상이익규모가 크게 늘어난 업소는 안정된 재무구조가 뒷받침된 659.0%의 한독약품과 187.2%의 녹우제약을 위시하여 대웅릴리(56.0%), 한국웨링(36.9%) 등이며 한국셀시바가이기는 93년 2억 2500만원 적자에서 13억100만원의 흑자로 전환됐다.

<화학저널 1995/5/29>